

IT업체, 시장선점 위한 파트너 물색 분주

자사 기술 보완 등 다방면 시너지 효과 기대

■ 백승오

최

근들어 벤처기업들 간의 '손잡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는 굳이 합병이나 인수 형태가 아니라도 업무제휴, 기술제휴, 공동개발, 공동출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또한 이미 수 년 전부터 벤처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있어왔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뚜렷한 인수나 합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병에 따르는 해당사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과감하게 합병을 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 벤처제품론의 제기로 인해 합병으로 인한 주가상승이나 기업포장을 노린다는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내의 벤처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기업합병을 하기에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합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업무제휴, 기술제휴, 공동개발 등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마도 향후 전개될 벤처기업 간의 합병의 전초가 아닐까?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한 벤처기업들의 합종연횡은 잠복기를 거쳐 활발히 살아날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규모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약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업체들간의 제휴는 기본적으로 기술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

를 얻으려는 목적이 크다. 다음으로 상호 취약한 기술을 보완함으로써 시장 진출과 선점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보통신업체나 벤처기업들의 업무제휴나 공동마케팅 등의 상호 협력은 국가 경쟁력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 간의 전략의 일환이긴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만 고려해 해석하기 보다는 업계 전반을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호 협력을 통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협력을 하는 기업들은 서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경쟁력 없는 업체와의 협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한 협력이 시장 왜곡을 초래해서 건실한 기업이 희생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정보통신업체들이 합종연횡을 다방면으로 해석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국메인라인시스템즈(주), 교보정보통신(주) 전략적 제휴

한국메인라인시스템즈의 EDW사업에 교보정보통신이 참여하고 양사의 높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활용해 한국의 EDW시장

을 선점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사는 이 분야에 최고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아래 S/W공급업체등과도 제휴를 모색키로 했다.

한국메인라인시스템즈(주)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S/W사업과 솔루션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중 S/W사업의 첫번째 모델로 선정된 EDW제품인 모비우스(MOBIUS)를 경영동반자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교보정보통신을 주축으로 디스트리뷰터 모집 및 기존 CMAP제도를 근간으로 국내에 시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교보정보통신 (대표 이경호, www.kico.co.kr) 은 올해 특화된 솔루션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지식관리 솔루션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메인라인시스템즈(주)와 제휴 계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공동 프로젝트를 벌여나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보정보통신은 지금까지 공기업 시장에서 쌓아온 그룹웨어 <intraLINK>구축 실적과 자체 보유한 EDMS솔루션 <intraDMS>를 통합, 연동하여 지식관리솔루션으로 패키지화하는 등 KMS 시장에서 전문성 및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공동출자형식, 멀티미디어전문벤처그룹 출범

국내 최초의 멀티미디어 전문 벤처그룹이 공식 출범했다. 인터넷 및 통신분야 벤처업체인 (주)로커스, (주)버추얼텍, (주)디지털 앤 디지털, (주)우리기술, (주)KTI와 전문건설업체인 (주)태영, 두산건설(주) 등 7개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이 회사는 공동 투자조인식을 갖고 광대역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사업을 본격화한다고 공식선 언했다.

7개사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멀티미디어 전문기업 제니스스 멀티 미디어(주) (총자본 88억원 규모)에 공동 출자하고, 디지털데이터 방송사업을 공동 수행해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멀티미디어 전문그룹의 출범은 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각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벤처업체들이 함께 공동사업을 수행,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서 로커스는 데이터방송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장비, 버추얼텍은 각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연계소프트웨어와 유선 및 WAP을 기반으로 한 무선 인터넷 그룹웨어, 디지털 앤 디지털은 셋톱박스 기술을, 우리기술은 인터넷 콘텐츠를, KTI는 보안 및 인공위성 관련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지능형 인터넷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4사 전략적 제휴

(주)서프골드를 비롯 (주)셀피아, (주)엔드리스레인, (주)짚코드 등 4사는 지능형인터넷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들 각 4개사는 개인의 자원관리 및 맞춤형 Commerce 시스템 등 개인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첫번째 단초로서 경매 사이트 셀피이에 각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제휴에 의하여 사이트 이용자는 경매다이어리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원 관리 및 경매 일정과 자신의 일정등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 경매를 통해 얻는 마일리지등을 통합포인트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시 자동변경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회사는 향후 고객 개인의 요구, 성향 기호등을 파악하여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를 개인화 기술로 특화, 실시간으로 잠재 고객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 엔진 공동 개발을 할 것이며 선택형 콤포넌트 기술로 고객 선택형 개인화 홈페이지 실현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나 회원제 사이트 등에서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비즈니스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4개사는 차별화 된 정보를 근간으로 고객 미래 행동 예측 자료를 제휴사간 또는 이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 인덕 IBM, 정보기술분야 제휴

지난 3월 E*미래에셋증권은 본격적인 사이버 금융회사로 발돋움 하고 첨단기술분야 벤처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한국 IBM과 정

보기술분야의 포괄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체결된 양사간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E*미래에셋증권은 정보기술이 향후 사이버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이 사업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 IBM을 지정, 한국 IBM으로부터 제반 시스템자원 및 기술용역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한국오라클(주) 등 3사의 모바일솔루션 기술 제휴

지난 3월 한국오라클(주)와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주), (주)엠커머스는 Mobile Internet Total Solution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 조인식을 통해 3사는 공동 마케팅, 공동 개발, 공동 영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사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기술 발전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3사의 제휴는 국내 시장 뿐 아니라 유럽,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Mobile Internet Total Solution 글로벌 마케팅을 추구하는 (주)엠커머스의 경영전략이 시스템 분야의 전문기업인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주)와데이터베이스 분야가 주력인 한국오라클(주)의 경영방침이 뜻을 같이하여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Mobile Internet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각 분야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삼 사의 전략적 제휴 체결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모바일 솔루션 업계에 주목할 일이라는 게 관계자의 평이다.

(주)에이시에스, Union Fenosa와 공동영입 조인

지난 3월 (주)에이시에스는 스페인의 전력분야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Union Fenosa 사와 상호 솔루션을 공동 영업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 조인식으로 인하여 Union Fenosa에서 개발된 전력분야의 소

프트웨어 솔루션- 디스트리뷰션 관리 시스템 인 Open SGD, 고객 정보시스템인 Open SGC, Generation 인 Open SGE 와 독립 시장 운영시스템 인 SIOM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영업 협력을 실시하고, 또한 (주)에이시에스에서 객체지향프로그램인 Java를 활용하여 개발된 감시제어 시스템인 Visualizer 제품 군과 국내에 이미 15여 고객을 보유한 설비관리시스템은 MAXIMO 및 설비관리 분야의 인터넷 조달 솔루션에 대한 MRO.com에 대한 솔루션을 Union Fenosa사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공동 영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NAI, 사이버패트럴 업무 제휴

지난 4월 e-비즈니스를 위한 보안 솔루션 업체인 네트워크 어쏘시에이즈(NAI)와 국내 보안서비스 회사인 사이버패트럴은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조인식을 체결하고 국내 보안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 어쏘시에이즈는 사이버패트럴이 구축 중인 통합관제센터(TSC)에 자사의 방화벽,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침입탐지 시스템, 헬프 데스크, 암호화 솔루션 등의 주요 보안 기술을 제공키로했다.

또한 사이버패트럴은 인터넷 보안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 정부 기관, 소호(SOHO) 등 100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업기념 '인터넷 보안시스템 무상 공급 행사'에 주요 공급사의 하나로 참여키로 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 어쏘시에이즈는 인터넷 보안 및 오프라인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하는 보안서비스 제공사인 사이버패트럴과 협력함으로써 국내 보안 시장에 본격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한국통신 (주)에이플스 전략적 제휴

한국통신과 (주)에이플스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호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지난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으로 한국통신은 네트워크 아웃

소싱 및 서버관리를 대행해주는 Co-Location과 VPN, 전용회선 등을 제공하고, (주)에이폴스는 컨설팅, ERP 제품공급, 고객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통신과 (주)에이폴스는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ERP 호스팅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통신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enTUM 인터넷 노크호스팅서비스와 함께 도입단계인 국내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사업분야의 유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한국통신이 ASP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BM-시스코시스템즈 공동영입활동 개시

한국IBM(대표 신재철)과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대표 홍성원)는 작년 8월 체결된 양사 본사간의 전략적 제휴에 근거해 국내에서의 공동 영업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IBM은 시스코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IBM의 (e-business 서비스)를 위한 주요한 솔루션으로 제공하며, 시스코는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의 실현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IBM과 공동으로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에서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양사는 이미 합의된 기본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 오피스 발족,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한국IBM 영업사원과 협력업체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공동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썬미티드-폰닷컴 무선인터넷 사업분야제휴

이동전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폰닷컴 (Phone.com)과 무선인터넷 시장응용서비스를 준비 중인 썬미티드(Sunlimited, 대표 이재영)가 무선인터넷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양사는 무선인터넷 관련 기술교류 및 공동개발, 무선포털 서비스에 대한 공동 사업추진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휴에 따라 썬미티드는 폰닷컴 제품의 국내 마케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무선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폰닷컴은 자사의 UP.Link(WAP 게이트웨이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인터넷 솔루션 및 관련 부가 소프트웨어등을 제공하게 된다.

폰닷컴은 이동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연결해 주는 UP.Link(WAP 게이트웨이 서버를 비롯하여 모바일 매니지먼트 서버 (Mobile Management Server), 위치정보서버 (Mobile Location Server), 인스턴트 메시징 (Instant Messaging)을 위한 프레젠스 서버 (Presence Server)등 차세대 무선인터넷 제품 및 음성인식, 통합메시징 등 관련 부가기술을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하여 국내 시장을 노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이프레스, 얼라이언스 시스템사인수

싸이프레스 코리아(대표 나원택)는 자사가 무선 시스템 회사인 얼라이언스 시스템즈社 인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싸이프레스사는 5월에만 두번째의 기업 인수를 성사시켰다. 싸이프레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선 사업 영역에서 얼라이언스사를 통해 아날로그, DSP, 그리고 RF 베이스밴드 기술과 함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 대한 전문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번 인수 반도체 RF 회로의 구성/설계 전문 회사인 레디오컴 (RadioCom)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다음주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싸이프레스는 레디오컴과 얼라이언스를 USB 사업과 결합시켜 인터페이스 제품 부문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싸이프레스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의 핸드셋 분야를 포함한 무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